



사랑의 시작점, 공감 능력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매년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라디오에서 한 번은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번 주간 묵주 기도 성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노래 가사를 떠올려다 보니) 세상을 향해 씬 없이 외치는 성모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묵주 기도 성월과 헤어지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저는 올해, 교회의 귀중한 선물인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제 20년 차,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여전히 모자란, 덩치만 큰 어른으로 살아왔음을 성찰하고 고백하며 지냅니다.

안식년 동안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 책자에 수록된 167곳의 순례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평신도가 이 길을 완주하고 축복장을 받는 걸 알게 되면서 사제인 저도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 100번째 순례지 방문 후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완주한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한 수고와 체험을 했을지 존경스러울 만큼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순례 중에 ‘나 홀로 미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그날 머무는 곳의 가까운 성당을 찾아 신자석에서 ‘함께하는 미사’의 소중함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난 경험도 합니다. 어느 본당의 수녀님은 저를 성가대에 데려가고 싶어 했고, 어느 본당의 자매님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라 권유했고, 어느 본당의 신부님은 미사 후에 먼저 나와 인사를 하면서 ‘혹시 우리 쪽 사람 아니냐?’며 미사 중에 제가 이쪽 사람인 걸 감으로 눈치채셨다는 등, 사제 복장을 갖추지 않으니 여러 상황을 겪습니다.

주일헌금도 매주 봉헌하는데, 제단에서 공지할 때는 몰랐던 2차 헌금이 왜 그리 자주 돌아오는지 가끔 헌금의 액수를 줄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느 날은 성당과 거리가 멀어 여유 있게 출발했는데도, 길을 헤매거나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미사에 늦어 신부님에게 꾸중 듣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면으로 다 공유하지 못하지만, 신자들의 불편한 마음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제가 그동안 제단 위에서, 그리고 본당 신부로서 우리 신자와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주님의 공감 능력에서 시작됨을 배웁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방인, 과부, 고아, 가난한 이를 포함한 모두의 상황을 공감했기에 그들을 지키고 사랑해달라고 계명으로 남깁니다. 이는 누군가가 당신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배우고 가르친 제가, 지금까지 하느님이 맡기신 어린 양들을 제단 위에서만 내려다봤으니, 요즘 제단 아래에서 깨우친 계명의 시작점(평신도와 공감)을 놓쳤던 겁니다. 제단 아래로 내려가 눈높이에 맞춰 형제자매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공감할 수 있고, 그제야 제대로 사랑하게 됨을 매주 신자석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도 서늘해질 차가운 공기 속에 이웃들과 공감하며 따뜻한 가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김형렬 요셉 신부 | 안식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탈출 22,20-26

화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2 독 서

1테살 1,5-10

복 음

마태 22,34-40

마리아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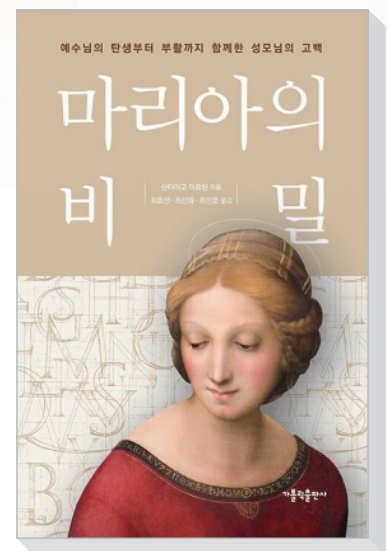
이준호 라파엘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오래전부터 남양에 가고 싶었다. 외국의 유명한 성당 못지않은 성모마리아 대성당이 그곳에 있다. 60만 개의 붉은 벽돌이 쓰였으며, 밖에서 볼 때 가운데 두 기둥이 대칭을 이루며 탑처럼 보인다. 기둥 위에는 일곱 개의 종이 나란히 달려있는데 매 시각 화음을 내듯 울린다. 성당 내부는 더욱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탈리아 조각의 거장 줄리아노 반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인상적이다. 똑같이 뒷면을 그린 양면화이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가 설계하고 시공한 성전은, 비록 건축학도가 아니더라도 하나씩 짚어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병인박해 때 무명의 신자들이 순교한 남양에 국내 최초의 성모 순례지가 탄생하기까지 이상각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의 노고와 열정이 말할 수 없이 컸음이다.

성지를 오르는 숲길 따라 화강석으로 다듬은 묵주알이 이어진다. 묵주기도를 하며 천천히 걸을 수도 있다. 모두 20단을 하게 된다. 문득, 하비에르 신부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이의 엄마는 원래 개신교 신자였다. 어느 날 아이가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경을 헤맸노라고 했다. 평소 가톨릭 신자인 시어머니의 권유를 강하게 거부해왔지만, 사고를 당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마리아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기도의 힘이였을까. 아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의사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의 지능이 낮을 것이라 했다. 그 엄마는 추운 겨울날, 남양성지의 묵주 길을 맨발로 걸으며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성모상 아래 약수를 받아 아이의 밥을 지었다. 이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저능아일 것이라던 아이는 민족사관고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으로 유학했고 그곳의 교수가 되었다. 뼈가 없던 아이 머리에는 얇은 막이 생겨났다.

그 엄마가 맨발로 걸었다던 로사리오 길을 가을날 걸어보았다. 오가는 신자들도 걸음을 멈춰 손으로 묵주 화강석을 만져보곤 했다. 가을 숲속 길 여기저기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모양도 묵주알을 닮았다. 가을 산책길에서 엄마의 애원과 눈물을 떠올렸다. 절박한 심정으로 성모께 매달리던 엄마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이 되어 나의 마음에도 와닿았다.

남양성지에서 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다. 스페인 신부 산티아고 마르틴이 쓴 『마리아의 비밀』이다. 이 책은 성모 마리아의 독백으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 예수와 제자 요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어머니로서 예수를 낳고 키운 과정,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함께했던 일들을 알려준다. 인류가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사연이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성경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구현된다. 정말 유럽 어느 수도원에 오랫동안 숨겨졌던 실재 책이 아닐까? 상상의 나래를 펼수록 신비롭다. 성모 마리아의 육성으로 다가오는 진실이 놀랍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복음서가 평면적이라면 '마리아의 비밀'은 생생하고 입체적이다. 이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서로 의지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는 장면들이 가깝게 다가와 새롭다. 신기하게도 『마리아의 비밀』을 읽고 나면 다른 책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연 책장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마리아의 비밀』이다. 이 책은 오늘날 가슴 아픈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어머니께 마음껏 간구하는 신심도 자라게 해 줄 것이다.



진동본당 '사랑하올 어머니 Pr.' 1,000차 기념 주회



진동본당(주임: 조정제 오딜론 신부) 천상은총의 어머니 Cu.(단장: 이경모 라이문도) 소속 사랑하올 어머니 Pr.(부장: 최도선 노엘라)은 10월 11일 1,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사랑하올 어머니 Pr.은 2003년 5월 7일 설립되었으며, 중 장년 여성으로 구성되어 8명의 정단원과 13명의 협조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기념 주회를 맞이하며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선배 단원들을 비롯하여 단원들의 노력으로 잘 극복하고 1,000차 주회를 맞이함에 감사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2,000차 주회 때에도 지금까지처럼 모두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며, 서로 격려와 축하를 하였다.

교구 평협 하반기 연수



교구 평협(담당: 최봉원 야고보 신부, 회장: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 하반기 연수가 10월 14일 교구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연수는 교구 내 각 본당 회장, 여성부 회장, 교구 제단체장, 교구 평협 위원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수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마산포의 첫 사제 에밀 타케 신부'를 주제로 한 초청 특강과 평협 각 분과 업무 보고로 이루어졌다. 4개 지구와 제단체별로 모여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평협 발전과 지구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제16기 어머니학교



16기 어머니학교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어머니학교에는 장성근 에단 신부(사목국 부국장)를 비롯하여 참가자 및 봉사자 23명이 함께하였다. 어머니학교 참가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6

고성지역 교우촌 (3)

고성지역 첫 공소는 계동桂洞公所라 했다. 모체는 고성을 기월리基月里 교우촌이고 큰 규모라고 했다. 두 번째 공소는 종생宗生公所다. 대가면 갈천리葛川里에 있었다.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의 1890년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신자 수 6명, 예비신자 12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작은 지역을 어떻게 선교사는 방문했을까?

갈천리 옛 이름은 갈내 마을이다. 개천이 갈라지는 곳에 마을이 있었기에 이런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종생公所는 갈내 마을 인근에 흩어져 있던 피난 교우를 누군가가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아마 그 사람이 자기 집을公所로 제공했을 것이다.

당시 로베르 신부의 거주지는 대구였다. 판공성사를 주려면 먼 길을 떠나야 했다. 동쪽은 경주, 울산까지, 서쪽은 산청, 진주까지 가야 했다. 그야말로 머나먼 고생길이었다. 진주(소촌)지역公所 방문이 끝나면 다음 코스는 거제도였다.

소촌(문산)에서 거제로 가는 지름길은 고성군 대가면을 지나 통영시 광도면 황리 쪽으로 가는 길이다. 현재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이 라인을 따라 건설되어 있다. 종생公所는 거제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에 로베르 신부의 방문이 가능했던 것이다. 훗날 이 길은 문산(소촌)에 본당이 서자 거제, 통영, 고성 신자들이 본당으로 판공성사 보러 가는 길이 된다.

종생公所 기록은 1894년부터 보이지 않는다. 대신 계동公所 신자 수가 갑자기 불어난다. 종생의 교우들은 기월리에 있던 계동으로 가서 판공성사를 보기 때문이다. 1890년 부산본당이 신설되자 고성지역은 부산본당에 속하게 되었다. 선교 사제는 부산 쪽에 가까웠던 계동公所로 교우들을 모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계동桂洞公所 기록도 1895년부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장동長洞公所가 등장한다. 고성의 세 번째公所다. 장동은 기월리와 맞붙은 대평리大坪里에 있었다. 이곳엔 넓은 들이 많았는데 장동 역시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었다. 특히 장동이 있는 들판을 건천乾川들이라 했다. 아마 이전엔 강바닥이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장동은 건천동으로 이름이 바뀐다.

장동公所 기록은 1895년 등장한다. 신자 수 66명이다. 사라진 1894년 계동公所 신자 수는 64명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고성을 방문한 선교사는 1894년까지는 계동에서 교우들을 만났고 1895년부터는 장동 마을에서 판공성사를 주었던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교우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때문이었던 것 같다. 당시는 독단적인公所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개는 회장 댁이나 비교적 큰 교우 집에서 사제를 모시곤 했다. 고성지역 교우 수가 많아지자 넓은 집이 요구되었는데 마침 장동에 그런 집이 있었을 것이다.

1899년 타케(Taquet 嚴宅基) 신부 교세통계표엔 장동公所 교우 수가 91명이다. 비교적 넓은 집으로 옮겨지만 장동公所 역시 교우들이 모이기엔 비좁은 장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 해엔 계동公所가 다시 부활한다. 타케 신부 1900년 보고서엔 장동 신자 45명, 계동 교우 50명으로 나와 있다. 두 곳을 따로 방문한 것이다.

계동과 종생공소를 첫 방문한 선교사는 대구본당 로베르 신부였다. 1890년 부산본당이 서자 조쥬(Jozean 趙得夏) 신부가 두 번째로 방문했다. 세 번째는 장동公所와 황리공소를 만든 우도(Oudot 吳保祿) 신부가 방문했고 마산포본당이 세워지면서 타케 신부가 네 번째로 방문했다. 타케 신부는 틈실公所 기록을 남겼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27

고성지역 교우촌 (4)

고성지역 첫 본당은 고성읍이 아닌 황리黃里에 먼저 신설된다. 1935년 6월 16일이다. 초대 주임은 명례明禮 출신 신순균(申順均 바오로) 새 신부였다. 같은 날 거제본당도 신설되고 이명우(李明雨 야고보) 신부가 부임했다. 그 역시 갓 서품된 새 신부였다. 신순균 신부는 명례 순교자 신석복(마르코)의 증손자曾孫子다. 부친 신 이냐시오는 신석복 순교자 외아들이었고 신순균 신부는 4형제 중 막내였다. 1949년 38세 젊은 나이로 선종했고 대구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황리는 통영군 광도면光道面에 속해 있었다. 엄밀히 따지면 고성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원래 황리는 고성군 광삼면光三面에 속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 통영군에 강제 편입되었다. 이때 고성군 도남면道南面도 함께 넘어간다. 광삼과 도남이 합쳐 광도면이 된 것이다.

고성 사람들이 못마땅해 한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당시 황리는 마산에서 통영으로 가는 뱃길의 요지였다. 행정만 바뀌었을 뿐 상권과 인맥은 모두 고성 사람들이 좌우하고 있었다. 황리는 여전히 고성 땅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황리에 본당이 섰지만 실제로는 고성본당으로 여겨졌고 피난 교우들에겐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황리에는 언제부터 피난 교우들이 있었을까? 공식 기록은 우도(Oudot 吳保祿) 신부의 1897년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신자 수 17명, 예비신자 3명이다. 우도 신부는 부산본당 두 번째 신부로 1894년부터 고성지역을 방문했고 장동공소를 만든 분이다. 열정이 있었던 그는 황리 교우촌 소식을 듣고 방문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황리에 교우들이 나타난 것은 병인박해와 무진박해(1868년) 이후로 여겨진다. 거제도와 통영 인근 섬에 살던 교우들이 뱃길이 용이한 황리로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그들은 육로를 통해 고성, 사천 쪽이나 문산 쪽으로 피신하려 했을 것이다.

이런 연緣으로 훗날 황리공소는 문산과 거제공소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 된다. 특히 당시는 가능한 교우끼리 혼인하던 시기였다.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했고 신심 깊은 교우일수록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산, 고성, 거제, 황리의 구 교우들은 혼인 관계로 서로 얽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황리黃里란 지명은 화리花里 즉 꽃마을이란 이름에서 유래한다. 마을을 싸안고 있는 면화山綿花山 때문이다. 해발 414m의 면화산은 계속해서 꽃 피고 꽃 지는 산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어질 면綿 꽃 화花 면화산인 것이다. 당연히 산 아랫마을은 꽃마을(花村)로 통했고 화촌이 화리로 변하면서 황리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황리에 본당이 섰지만 고성 쪽에도 신부를 보내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다. 오래된 계동과 장동공소 회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황리본당을 고성읍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던 중 자동차의 등장으로 황리지역은 갑자기 사양길을 걷게 된다. 뱃길에 의존하던 교통이 육로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황리본당의 고성읍 이전은 1939년 5월 14일 자로 발표된다. 첫 본당 신부는 서정도(徐廷道 벨라도) 신부였다. 황리 주임 고군삼(高君三 베네딕도) 신부는 김천으로 이동되고 황리는 다시 공소가 되었다. 신순균 신부는 부임 후 2년 뒤(1937년) 대구 계산동 보좌로 갔고 제주 출신의 고군삼 신부가 왔던 것이다. 황리본당은 4년 만에 재워 신부 두 분으로 끝났다.

교구장 서리 동정

교구 합동 위령미사

일시: 11월 2일(목) 11:00

장소: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견진성사

일시: 11월 5일(주일)

장소: 옥포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사제단 체육대회

일시: 10월 30일(월) 10:00

장소: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교구 합동 위령미사

일시: 11월 2일(목) 11:00

장소: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장례지도사 9차 교육

일시: 11월 3일(금)~5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앙대학

일시: 11월 4일(토)~5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11월 5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기타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원데이클래스

일시: 11월 18일(토) 14:00

장소: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원

내용: 원석 묵주팔지 만들기

대상: 청년/ 문의: 010·5639·8071

가족세우기(버터 헬링거 박사의 사랑의 질서에 의한)

일시: 11월 26일(주일) 13:00~17:00

장소: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

대상: 성인(가족 포함)/ 참가비: 3만 원

문의: 055·255·8295, 010·7661·3832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일시: 12월 17일(주일) 10:30~17:00

장소: 부산가정성당

대상: 혼인을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 신자로

33~45세(1990~1978년생) 미혼자

(2022년 제1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참석자 배제)

접수: 11월 26일(주일)까지, 선착순 남녀 각 30명

문의: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1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피정(2박 3일)

일시: 12월 23일(토) 16:00~25일(월) 13:0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5만 원, [대구은행 504-82-00018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준비물: 수건, 칫솔 등 개인 세면도구, 텀블러 준비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사용입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6회 학술발표회

주제-새로운 만남: 다름의 공존

일시: 11월 9일(목) 10:00~17: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남평)

주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광주인권평화재단

문의: 061·339·2231(연구소)/ 061·337·2181(대학본부)

▶참가하실 분들은 10월 31일(화)까지 유선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2024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교구 내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학상담: 10월~11월

대상: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입학설명회

●성미유치원(고현성당)-10월 30일(월) 17:00

문의: 055·636·4288

●소화유치원(문산성당)-전화문의 및 수시상담

문의: 055·761·8755

●성심유치원(중앙동성당)-전화문의

문의: 055·547·7187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전화문의

문의: 055·265·0791

●살레시오 성미유치원-전화문의 및 수시상담

문의: 055·297·6104

●파티마 어린이집-10월~11월 수시 상담(2, 3, 4세 모집)

문의: 055·276·2207

●성모유치원(합천성당)-전화문의 및 수시상담

문의: 055·931·1285

푸른군대 성모신심피정

일시: 10월 31일(화) 09:30/ 미사-15:00

장소: 월영성당

내용: 1강의- 최영철(알폰소) 신부,

2강의- 최태준(필립보) 신부

주관: 파티마세계사도직푸른군대

문의: 교구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교구 진주시구 청찬문화합창단 제3회 연주회

일시: 11월 10일(금) 19:30

장소: 진주시 문산읍 해돋이아트홀(옛 진양고 자리)

연주곡: '슈베르트 미사곡 사장조' 외 성가 및 일반곡

입장료: 무료

·단장-장성조 바오로, ·지휘-이승엽 야고보,

·반주-윤정은, ·양상블-K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주일) 16:00~2024년 1월 1일(월)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송년미사, 해맞이, 신년 대축일 미사)

접수: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 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및 문의: 055·221·1891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3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체안에 계신분은 누구신가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010·5247·9900
진주시구	10월 30일(월) 19:30	신안동성당	회복의 주님	한주인 마태오 신부		010·3846·198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 5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에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에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7

김영희 바울리나(봉곡동본당)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저희 4명은 거제지구 공소 순례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인 지향과 몇 년 전 거제에서 1년을 살았기에 거제의 공소 순례는 남다른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길 안내와 운전의 여신 정희 글라라 씨, 예쁜 목소리로 기도를 주관하는 티나 씨, 또 본당의 큰 일꾼이며 짝꿍인 명숙 글라라 씨와 함께 기대에 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출발 40분 후 오늘의 첫 목표 황리공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성지역의 첫 본당이며 국가등록문화재 제734호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신석복 마르코 복자의 손자이신 신순균 신부님이 초대 신부님이었다는 사실은 또 우리들을 감격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인의 좋은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로 전해질 것입니다. 황리공소의 십자가의 길 기도문은 옛날 한글체로 되어 있어서 한참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더듬거리며 기도문을 읽었던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 공소들 순례 중에 도시화로 거의 폐허가 된 공소를 쳐다보며 이런 공소의 공소 지기가 되어 볼까 하는 일시적인 감상에 젖어보기도 하고 학동공소 바닷가의 자갈들을 보며 잠시 즐거움도 맛보았습니다.

처음 공소 순례를 제안했을 때 기꺼이 동참해 준 본당의 아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들의 공소 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8

한영애 아네스(대건본당)

이 일을 어떡하지... 공소 순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다리던 2차 공소 순례를 시작하기 이틀 전, MRI 검사 결과 척추 10번 골절이라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고 그만 엉엉 울어버렸다. 3개월간 보조기를 차고 가만히 누워 있으란다.

“이 일을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꼭 공소 순례해야 돼요!” 일단 함께할 예정이었던 순례단 일행들에게 알렸다. 일행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일단 몸부터 나으라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

정말 하늘에서 막 내려온 천사들 같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너무 좋아 눈물이 나왔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3개월의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첫 순례 시작 날!

날씨는 뜨겁고 허리엔 보조기를 찾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발걸음은 가볍다 못해 날아갈 듯했다.

폭포수같이 내리는 주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느끼며 들르는 공소마다 책자에 나와있는 공소 소개 글들을 낱알이 읽어가며 조금이라도 더 마음속에 담으려고 애를 썼다.

범송공소 방문 때엔 굳게 닫힌 문 사이로 텅 빈 공간 안에 성모님 혼자 서서 계시는 모습.

가배공소 역시 파손된 성모상 앞에서 기도드리고 돌아서서 나오려니 편치 않은 마음에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았다. 웬지 더 오래 머물고만 싶었던 아름다웠던 옥지공소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난 후 성모님 앞에서는 큰 소리로 “주 하느님 크시도다”를 합창하니 어찌 이리도 편안하고 아늑한지.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랑의 두 계명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아무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악마에게, 공생활을 시작하신 후에는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에게서, 그리고 군중들로부터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들은 그분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결과는 항상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을 막으려는 이들이 벌인 시험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훌륭한 현장이 되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사두가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려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겠다 싶은 올가미가 될 질문을 생각해 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해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듯,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꿰뚫어 단 두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사랑의 두 계명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두 계명이 현대에 와서 또다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 바보스럽게 여겨집니다. 종교에 관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매우 특징적인 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배제합니다. 즉 하느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조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국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며,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 돌아가야 할 피조물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럴싸하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생각들입니다. 이기심, 나르시즘 등이 자기 사랑이라고 곡해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하며 희생한다면 다른 이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란 걸 모르는 처사입니다.

이 세대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시험인 줄도 모르고 종종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교묘한 형태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분명히 알아채고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며 그들의 교묘한 꾀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시험의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외에 더 크게 따라야 할 계명은 없기 때문입니다.